

냉담-무정서 특질이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전 세 진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학과
석사

부교수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냉담-무정서 특질, 소년범죄,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5S1A5A2A03048065).

† 교신저자 : 이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E-mail: jylee7694@dongduk.ac.kr

서론

소년범죄는 18세 이하의 소년이 행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가리킨다(서봉언, 김경식, 2015). 소년범죄는 비행, 공격성, 외현화 문제 행동,品行장애와 비슷한 양상을 공유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비행, 외현화 문제행동,品行장애,品行문제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소년범죄는 법률을 위반하여品行교정을 위해 법적 처분을 받은 범죄행위만을 특징적으로 지칭한다(김봉수, 2013; 오경자, 김영아, 2010; APA, 2013). 2019년 발행한 법무연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자는 지난 10년 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72,759명으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강력범죄 역시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전체 소년범죄자 중 여자소년범의 비율도 2014년 14.8%로 감소추세였다가 2017년 16.6%로 최근 3년 간 소폭의 증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전체적으로 소년사범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흉악범, 폭력사범 및 여자소년범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소년범죄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내적인 특성 및 환경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 CU)이란 죄책감의 부재, 피상적인 정서, 수행에 대한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병질(psychopath)의 정서적 차원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기질적 요인으로 보고되었다(Frick & White, 2008; Pechorro, Ray, Gonçaves, & Jesus, 2017). 냉담-무정서 특질은 정신병질의 행동적, 대인관계적 차원과 달리品行장애 집단 내에서 특별히

더욱 심각한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기 때문에(Frick, 2006),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는品行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명시자로 활용되기도 한다(APA, 2013).

냉담-무정서 특질은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냉담성은 양심의 가책이 결여된 특징, 부주의/무신경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잇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조심성이 부족한 특징을 나타내며, 감정표현결여는 감정표현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소년범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일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연령, 형사고발을 당한 횟수, 범죄의 심각도를 예측할 수 있다(Byrd, Kahn, & Pardini, 2013; Kimonis, Kennealy, & Goulter, 2016; Pechorro et al., 2017). 게다가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은 소년범죄 집단의 리더 역할과 관련이 있고 대체로 또래와 함께 공동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기 범죄행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Thornton et al., 2015). 특히 하위요인 중 부주의/무신경은 폭력범죄, 절도, 기물파손, 협박범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Colins, Andershed, Hawes, Bijttebier, & Pardini, 2016). 따라서 소년범죄와 관련된 냉담함, 죄책감이 결여된 특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냉담-무정서 특질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부모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연

구에서 청소년의 범죄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긍정적 부모양육행동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수용과 일상생활 모니터링이 있다. Schaefer(1965)에 따르면, 수용이란 부모가 자녀를 온정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족한 수용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범죄 및 품행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원에 재소 중인 비행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비행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부모의 수용을 적게 경험한 것을 밝혀, 수용과 같은 온정적 양육행동이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다. 연현진, 한애경과 윤혜미(2011)도 소년원에 입소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사이코패스성향과 부모양육행동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자녀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결국 자녀의 자기통제 능력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모니터링이란 자녀가 자유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몇 시에 귀가하는지 등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부모의 일상생활 모니터링이 부족할수록 자녀의 범죄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ndgen, Vitaro, Tremblay, & Lavoie, 2001; Kerr, Stattin, & Trost, 1999). 김희화(2009)에 따르면, 부모의 모니터링은 비행또래와의 동조를 통해 범죄에 참여하는 것을 증대할 수 있어, 청소년의 범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감독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년원에 재소 중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Ray et al., 2017)에서도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범죄 청소년은 비행또래와 교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감독이 높을 경우 비행또래와의 교류가 감소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긍정적 양육행동은 소년범죄의 발생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겠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년범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하지만, 부모양육행동과 같은 가족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lan, Gorman-Smith와 Henry(2003)는 취약한 가정환경이 부모의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고 비행또래와 어울리도록 조성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아동·청소년의 범죄 및 품행문제의 증가를 예측한다고 보고되었다(황진규, 2011; Mcloyd, 2011). Piotrowska, Stride, Croft와 Rowe(2015)의 연구에서는 기질적 요인인 냉담-무정서 특질과 환경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호작용하면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된 범죄와 관련되는 요인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냉담-무정서 특질의 총점과 하위요인의 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송보경, 이주영, 2014; Essau, Sasagawa, & Frick, 2006; Fanti, Frick, & Georgiou, 2009). 부모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애정적 부모양육과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경험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Bezirgianian & Cohen, 1992; Endendijk et al., 2017에서 재인용; Bowman, Prelow, & Weaver, 2007). 이처럼 범죄 관련 변인들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년범죄의 관련 요인으로 비교적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부모 및 또래 효과를 살펴보고 있어, 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요인인 냉담-무정서 특질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실제로 소년법 위반으로 사법적 처분을 받은 집단과 일반 지역사회 집단을 비교한 연구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에서 각각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소년범죄 유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소년범죄 유무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소년범죄 유무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냉담-무정서 특질,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년범죄 유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와 수도권 소재 일반 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소년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 청소년들과 일반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소년범죄 집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소년범죄 집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모집되었다(이주영 등, 2017). 총 276명의 연구대상 중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고한 만 15~17세 10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16.21세(15~17세, $SD=.82$)였으며, 남자가 68명(66.0%), 여자가 35명(34.0%)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보호관찰 기간은 475.66일(180~730일, $SD=193.06$)이었으며, 과거부터 자료수집 시점까지의 보호관찰 횟수는 평균 1.74번(1~6번, $SD=1.08$)이었다.

일반 집단

일반 고등학생 대상자(‘일반 집단’)는 편의 표집에 의해 2018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의 7개 공립 고등학교(인문계)에서 모집되었다. 일반 집단은 범죄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성별을 기준으로 한 대응 표집(matched sampling)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만 15~17세의 남자 77명, 여자 6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15.92세(15~17세, $SD=.66$)였고, 남자가 65명(52.8.0%), 여자가 58명(47.2%)이었으며, 여자는 범죄 집단의 성비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소년범죄 집단 N(%)	일반 집단 N(%)
성별	남	68(66.0%)	65(65.0%)
	여	35(34.0%)	35(35.0%)
연령	15	26(25.2%)	26(26.0%)
	16	29(28.2%)	56(56.0%)
	17	48(16.6%)	18(18.0%)
아버지 학력	대학원졸	5(4.9%)	21(21.0%)
	대졸	29(28.2%)	42(42.0%)
	고졸	58(56.3%)	27(27.0%)
	중졸이하	11(10.7%)	2(2.0%)
어머니 학력	대학원졸	6(5.8%)	18(18.0%)
	대졸	25(24.3%)	44(44.0%)
	고졸	62(60.2%)	28(28.0%)
	중졸이하	10(9.7%)	1(1.0%)
경제 수준	고소득층	-	6(6.0%)
	중산층의 상	14(13.6%)	29(29.0%)
	중산층의 중	45(43.7%)	46(46.0%)
	중산층의 하	32(31.1%)	16(16.0%)
	저소득층	12(11.7%)	1(1.0%)

에 맞추기 위해 58명 중 35명의 자료를 무선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 도구

냉담-무정서 특질

냉담-무정서 특질은 Frick(2003)이 냉담하고 무정서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권은정, 손애리와 황순택(2010)이 번안한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K-ICU)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냉담성

(Callousness) 11문항(예: 나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부주의/무신경(Uncaring) 8문항(예: 나는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에 휘말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감정표현결여(Unemotional) 5문항(예: 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Essau et al, 2006).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4문항을 합한 총점을 냉담-무정서 특질의 총점으로, 각각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한 총점을 하위요인 점수로 활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더 냉담하고 결핍된 정서를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냉담성이 .75, 부주의/무신경이 .85, 감정표현결여가 .68이었다.

부모양육행동: 수용

부모의 수용행동은 Schaefer(1965)가 개발한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를 이지연(2013)이 번안한 CRPBI 중 수용(acceptance)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예: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잘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수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수용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부모양육행동: 일상생활 모니터링

부모의 일상생활 모니터링은 Kerr 등(1999)

이 개발한 Daily Activity Scale을 이지연(2013)이 번안한 일상생활 모니터링(parental monitoring)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9문항(예: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밤에 친구들과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가는지 아신다)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모니터링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였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1점(대학원졸 이상), 2점(대졸), 3점(고졸), 4점(중졸이하)으로, 경제수준은 1점(고소득층), 2점(중산층의 상), 3점(중산층의 중), 4점(중산층의 하), 5점(저소득층)으로 평정하게 구성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경제 수준 문항을 역채점한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을 사용하였다. Achenbach와 Rescorla(2001)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Youth Self Report(YSR)를 개발하였고, 이를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으로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행동척도 중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공격행동(17문항) 및 규칙위반(15문항) 총 3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점(전혀 아니다), 1점(가끔 그렇다), 2점(자주 그렇다)의 3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된다. 두 척도의 점수 합은 외현화 문제 총점을 구성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공격행동이 .83, 규칙위반이 .72이었다.

인구학적 정보 및 범죄관련 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범죄 명,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횟수 등을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절차

소년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의 자료 수집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년범죄 집단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승인번호: P01-201606-22-003), 9개월 간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 세 곳에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연구보조원들이 연구대상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소프트웨어인 쉐트릭스(Shetricks)를 활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은 지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을 모두 완료한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되었다. 일반 집단은 연구자의 소속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DDWU1805-05), 연구자가 한 달 동안 공립 고등학교에 직접 내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연구대상자에 한해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지를 모두 완료한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Windows SPSS 20.0을 활용해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소년범죄 유무에 따른 냉담-무정서 특질,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년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소년범죄에 대한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소년범죄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먼저, 측정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살펴보기 위해 소년범죄 집

표 2.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범죄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측정변인	소년범죄	일반 집단	<i>t</i>	왜도	첨도
	집단(<i>n</i> =103)	(<i>n</i> =100)			
	<i>M</i> (<i>SD</i>)	<i>M</i> (<i>SD</i>)			
CU총점	1.10(.35)	1.01(.31)	1.83	-.26(-.15)	-.43(0.33)
CU냉담성	.61(.40)	.66(.45)	-.89	1.43(1.29)	3.81(2.14)
CU부주의/무신경	1.33(.53)	.89(.50)	6.03***	-.19(.12)	-.50(-.79)
CU감정표현결여	1.37(.64)	1.50(.58)	-1.51	-.05(.01)	-.19(.01)
수용	3.54(1.00)	3.73(.90)	-1.47	-.46(-.67)	-.20(.01)
일상생활모니터링	3.40(1.01)	3.67(.33)	-1.91	-.35(-.59)	-.36(.03)
아버지 학력	2.27(.72)	2.89(.78)	-5.79***	.36(-.10)	.14(-.70)
어머니 학력	2.26(.71)	2.87(.73)	-5.83***	.56(.04)	.43(-.74)
경제 수준	2.59(.87)	3.23(.84)	-5.34***	-.20(.08)	-.58(-.15)
외현화 문제행동	14.34(8.34)	8.35(6.90)	5.56***	.40(1.03)	-.48(1.01)

p*<.05, **p*<.001

주1. CU: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

주2. 외현화 문제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해당 변인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임. 외현화 문제행동은 해당 척도의 원점수를 기재함.

주3. 괄호 밖은 소년범죄 집단의 왜도 및 첨도를, 괄호 안은 일반 집단의 왜도 및 첨도를 기재함.

단과 일반 집단의 기술통계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Curran, West와 Finch(1996)는 왜도의 절대값이 2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7이상일 경우 정규성 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의 왜도는 -.05~1.43, 첨도는 -.58~3.81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소년범죄 유무에 따른 냉담-무정서 특질과 그 하위요인, 부모양육행동(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지위,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에서는 소년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 중 부주의/무신경($t=6.03, p<.001$)은 소년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행동의 수용과 일상생활 모니터링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아버지 학력($t=-5.79, p<.001$), 어머니 학력($t=-5.83, p<.001$), 경제 수준($t=-5.34, p<.001$) 모두에서 소년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소년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 각각에서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소년범죄 집단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총점이 하위요인인 냉담성($r=.52, p<.01$), 부주의/무신경($r=.68, p<.01$), 감정표현결여($r=.73,$

표 3. 범죄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1	1-2	1-3	1-4	2-1	2-2	3-1	3-2	3-3	4-1
1-1		.52**	.68**	.73**	-.40**	-.33**	-.09	-.05	-.03	.18
1-2	.56**		.18	.08	-.03	-.07	.06	.07	-.06	.14
1-3	.65**	.18		.16	-.40**	-.26**	-.14	-.09	-.01	.28**
1-4	.64**	-.02	.06		-.30**	-.28**	-.07	-.04	-.00	-.03
2-1	-.28**	-.02	-.44**	-.06		.68**	.11	.14	.14	-.22*
2-2	-.32**	-.01	-.39**	-.19	.58**		.12	.18	.27**	-.17
3-1	-.23*	-.07	-.17	-.17	.21*	.05		.59**	.34**	.04
3-2	-.20	-.13	-.19	-.06	.16	-.02	.65**		.33**	.11
3-3	-.11	-.02	-.11	-.07	.26**	.19	.27**	.16		-.08
4-1	.41**	.54**	.22*	.07	-.21*	-.17	-.01	-.05	.08	

* $p<.05$, ** $p<.01$

주1. 대각선 상단은 소년범죄 집단($n=103$), 하단은 일반 집단($n=100$)임.

주2. 1-1: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 1-2: 냉담성, 1-3: 부주의/무신경, 1-4: 감정표현결여, 2-1: 수용, 2-2: 일상생활모니터링, 3-1: 아버지 학력, 3-2: 어머니 학력, 3-3: 경제수준, 4-1: 외현화 문제행동

$p < .01$)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냉담-무정서 특질의 총점은 부모양육행동의 수용($r = -.40, p < .01$)과 일상생활 모니터링($r = -.33,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무신경은 부모양육의 수용($r = -.40, p < .01$)과 일상생활 모니터링($r = -.26,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외현화 문제행동($r = .28,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감정표현결여는 부주의/무신경과 마찬가지로 부모양육행동의 수용($r = -.30, p < .01$)과 일상생활 모니터링($r = -.28,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냉담성은 다른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부모양육행동의 수용은 범죄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r = -.22,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일상생활 모니터링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제 수준($r = .27,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일반 집단에서도 범죄 집단과 동일하게 냉담-무정서 특질의 총점이 냉담성($r = .56, p < .01$), 부주의/무신경($r = .65, p < .01$), 감정표현결여($r = .64,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냉담-무정서 특질의 총점은 부모양육행동의 수용($r = -.28, p < .01$)과 일상생활 모니터링($r = -.32,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무신경은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부모양육행동의 수용($r = -.44, p < .01$), 일상생활 모니터링($r = -.39,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범죄 집단과 달리 부모양육행동의 수용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제 수준($r = .26,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환경요인 중 유일하게 외현화 문제행동($r = -.21, p < .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소년범죄에 대한 예측 요인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차를 통제하고자 성별 요인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성별은 소년범죄를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R=.90, 95% CI=.50-1.61, ns). 2단계에서는 기질적 요인인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부주의/무신경(OR=.18, CI=.09-.36, $p < .001$), 감정표현결여(OR=1.7, CI=1.01-2.92, $p < .05$)가 소년범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주의/무신경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소년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18배 증가하고, 감정표현결여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소년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7배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질적인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들 중 소년범죄를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3단계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경제 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주의/무신경(OR=.15, 95% CI=.07-.34, $p < .001$)과 경제 수준(OR=2.52, 95% CI=1.63-3.88, $p < .001$)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주의/무신경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소년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15배 증가하며, 가정의 경제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소년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52배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소년범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

독립 변인	소년범죄(소년범죄 집단=0, 일반 집단=1)		
	OR	95% CI	
1단계	성별	.90	.50-1.61
	성별	.66	.34-1.31
2단계	CU 냉담성	2.16	.91-5.20
	CU 부주의/무신경	.18***	.09-.36
	CU 감정표현결여	1.70*	1.01-2.92
3단계	성별	.75	.36-1.56
	CU 냉담성	2.31	.92-5.80
	CU 부주의/무신경	.15***	.07-.34
	CU 감정표현결여	1.65	.92-2.94
	수용	.71	.44-1.13
	일상생활 모니터링	1.06	.67-1.68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 수준	2.52***	1.63-3.88
1단계 전체 예측 정확률		51.5%	
2단계 전체 예측 정확률		69.5%	
3단계 전체 예측 정확률		77.0%	

* $p < .05$, *** $p < .001$

주. CU: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

논 의

본 연구는 소년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와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내적 요인인 냉담-무정서 특질, 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소년범죄자가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 중 부주의/무신경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죄자가 일

반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반사회적 성격 성향과 관련된 냉담성보다 행동화 성향과 관련된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Frick & White, 2008). 그리고 일반 집단이 소년범죄 집단보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년원 집단과 인문계 고등학생 집단을 비교한 옥정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상대적으로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Rankin

& Quane, 2002). 한편 선행연구들과 달리 일반 집단과 소년범죄 집단 간 부모양육행동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Calhoun, Glaser, Peiper, & Carr, 2015),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이 시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고 독립성이 증가하며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이다(장휘숙, 2009). 그러므로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년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에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유무와 상관없이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 중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양육행동인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녀가 행동의 결과에 무신경하며 처벌에 반응하지 않을수록 부모는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제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Muñoz, Pakalniskiene, & Frick, 2011). 이는 공감능력이 결여된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을 때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김다슬, 2018).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 부모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제 수준 중 소년범죄를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단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 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부주의/무신경이 범죄 청소년의 첫 범죄 연령, 사법기관 수용 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Pechorro et al., 2017; Pihet, Etter, Schmid, & Kimonis,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

신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특성은 청소년기 범죄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감정표현결여는 소년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성향을 지닐수록 소년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감정표현결여는 친사회적 행동과 낮은 상관을 보일 뿐, 다른 하위요인과 달리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과 일관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며 소년범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Fanti et al., 2009, Waller et al., 2015). 본 연구에서 환경 변인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감정표현결여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냉담-무정서 특질의 높은 부주의/무신경과 낮은 감정표현결여가 소년범죄와 관련될 수 있지만, 부모양육행동과 경제 수준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때는 부주의/무신경만이 유일하게 소년범죄 집단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질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를 예측하는 낮은 경제 수준에 대해 Chung과 Steinberg(2006)는 취약한 지역 환경,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낮은 응집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즉, 빈곤이 주거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면서 범죄 청소년은 버려진 건물이나 범죄에 취약한 무질서한 지역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응집성 부재로 인해 이웃 주민 간의 친밀감, 모니터링에 따른 친사회적 규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

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기질적으로 본인의 반사회적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실제 범죄라는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통제가 낮은 불안정한 환경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환경 변인으로는 낮은 경제 수준에 기인하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소년범죄를 예측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담-무정서 특질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다중체계적(multisystemic)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부모양육행동은 소년범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소년범죄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범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했던 연구들(Gard, Waller, Shaw, Forbes, Hariri, & Hyde, 2017; Humayun, Kahn, Frick, & Viding, 2014)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부모양육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Waller, Gardner, & Hyde, 2013),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수용과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같은 양육 특성보다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윤우석, 2010). 또한, Hoeve 등(2009)에 따르면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서로 독립된 차원으로,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으면서 동시에 부정적 양육행동도 높을 수 있다. 그러

므로 높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긍정적 양육행동보다 범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별개로 소년범죄를 예측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소년범죄를 예측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요약하면,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 중 높은 부주의/무신경과 낮은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담-무정서 특질이라는 심리내적 취약성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무신경한 범죄 청소년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 수준과 같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은 이들을 범죄로부터 잠재적으로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가정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 수준과도 관련되지만 거주환경의 불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Ludwig, Duncan, & Hirschfield, 2001),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과 같은 범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겠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또래와 가족을 주로 다루었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냉담-무정서 특질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거시적인 가정환경이 소년범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Chung, & Steinberg, 2006), 소년범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심리내적인 요인들에 국한하여 살펴보는 것은 소년

범죄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청소년의 병리적인 기질적 특성과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로 수집되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자기보고식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제 수준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경제 수준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년범죄 집단에 대한 대응표집으로 일반 집단을 구성할 때 모든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인구학적 변인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성별, 연령 및 기타 인구학적 변인을 대응시켜 소년범죄 집단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소년범죄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범죄 유형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냉담-무정서 특질에 대한 보호요인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소년범죄 집단의 범죄력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이 소년범죄 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기 청소년기의 범죄행위에는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Ray et al., 2017), 후

속 연구에서는 비행또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을 알아볼 수 없었다. 부모의 낮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Waller et al., 2013),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이 소년범죄를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요인이 냉담-무정서 특질과 소년범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들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보았으나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냉담-무정서 특질과 소년범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각각의 변인이 모두 소년범죄 집단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재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일반 집단 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 범죄 집단 대상은 소년법에 따른 4, 5호 보호처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일반 고등학생과 범죄 청소년에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겠다. 특히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일반 집단의 청소년 중에서는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무관심한 청소년

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과 함께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중요하다. 결국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무신경한 기질적 특성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범죄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 (2010).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K-ICU)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8(2), 1-16.
- 김다슬 (2018). 냉담-무정서 특질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수 (2013).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법학논총*, 33(1), 173-197.
- 김희화 (2009). 청소년 초기의 또래동조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 및 친한 친구 비행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6(7), 127-147.
- 법무연수원 (2019). 2018 범죄백서.
- 서봉언, 김경식 (2015). 남녀 집단에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과 부모감독의 종단관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1(1), 87-108.
- 송보경, 이주영 (2014).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633-660.
- 연현진, 한애경, 윤혜미 (2011). 남자범죄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학대피해경험과 사이코패스 성향의 관련성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8(1), 141-171.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주)휴노: 서울.
- 옥 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59-270.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1), 175-202.
- 이주영, 이수진, 변지애, 김현경, 정유희, 손외철 (2017).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의 성차: 학대경험, 충동성, 약물사용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7(2), 109-138.
- 이지연 (2013).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xternal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 (제 4 판). 박영사.
- 황진규 (2011).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과의 관계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2(2), 115-133.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Bowman, M. A., Prelow, H. M., & Weaver, S. R. (2007). Parenting behaviors,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delinquency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 mediated-moderation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4), 517-527.
-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Lavoie, F.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redictions to physical violence in different contex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aregiv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4), 293-304.
- Byrd, A. L., Kahn, R. E., & Pardini, D. A. (2013). A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 ma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1), 20-34.
- Calhoun, G. B., Glaser, B. A., Peiper, J., & Carr, B. M. (2015).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Who Fight and Carry Weap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0*(5), 643-650.
- Chung, H. L., & Steinberg, L. (2006). Relations between neighborhood factors, parenting behaviors, peer deviance, and delinquency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19-331.
- Colins, O. F., Andershed, H., Hawes, S. W., Bijttebier, P., & Pardini, D. A. (2016).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original and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detained female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7*(5), 679-69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Endendijk, J. J., Groeneveld, M. G., van der Pol, L. D., van Berckel, S. R., Hallers Haalboom, E. T., Bakermans Kranenburg, M. J., & Mesman, J. (2017).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ggression: Relations with gender differentiated parenting and parents' gender role stereotypes. *Child development, 88*(1), 299-316.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4), 454-469.
- Fanti, K. A., Frick, P. J., & Georgiou, S. (2009). Link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to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forms of agg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4), 285.
- Frick, P. J. (2003).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rating scale.
- Frick, P. J. (2006).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disorde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5*(2), 311-331.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 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59-375.

- Gard, A. M., Waller, R., Shaw, D. S., Forbes, E. E., Hariri, A. R., & Hyde, L. W. (2017). The long reach of early adversity: Parenting, stress, and neural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 in adulthood. *Biological Psychiatry: 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imaging*, 2(7), 582-590.
-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 Gerris, J.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6), 749-775.
- Humayun, S., Kahn, R. E., Frick, P. J., & Viding, E. (2014).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xiety in a community sample of 7-year-old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3(1), 36-42.
- Kerr, M., Stattin, H., & Trost, K. (1999). To know you is to trust you: Parents' trust is rooted in child disclosure of in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6), 737-752.
- Kimonis, E. R., Kennealy, P. J., & Goulter, N. (2016). Does the self-report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predict recidivism?. *Psychological Assessment*, 28(12), 1616-1624.
- Ludwig, J., Duncan, G. J., & Hirschfield, P. (2001). Urban poverty and juvenile crime: Evidence from a randomized housing-mobility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655-679.
- McLoyd V. C. (2011) How Money Matters for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Family Processes and Parental Investment. In: Carlo G., Crockett L., Carranza M. (Eds.), *Health Disparities in Youth and Families*, 33-57. New York: Springer.
- Muñoz, L. C., Pakalniskiene, V., & Frick, P. J. (2011). Parental monitoring and youth behavior problems: Moderation by callous-unemotional traits over tim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0(5), 261-269.
- Pechorro, P., Ray, J. V., Gonçaves, R. A., & Jesus, S. N. (2017).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Psychometric properties among referred and non-referred Portuguese female juven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54(1), 67-75.
- Pihet, S., Etter, S., Schmid, M., & Kimonis, E. R. (2015). Assess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dolescents: Validity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cross gender, age, and community/institutionalized statu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3), 407-421.
- Piotrowska, P. J., Stride, C. B., Croft, S. E., & Rowe, R. (2015). Socioeconomic status and antisocial behaviour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5(1), 47-55.
- Ray, J. V., Frick, P. J., Thornton, L. C., Wall Myers, T. D., Steinberg, L., & Cauffman, E. (2017). Callous-unemotional traits predict self-reported offending in adolescent boys: The mediating role of delinquent peers and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53(2), 319-328.
- Rankin, B. H., & Quane, J. M. (2002). Social contexts and urban adolescent outcomes: The interrelated effects of neighborhoods, families,

- and peers on African-American youth. *Social Problems*, 49(1), 79-100.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Thornton, L. C., Frick, P. J., Shulman, E. P., Ray, J. V., Steinberg, L., & Cauffman, E. (2015).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dolescents' role in group crime. *Law and Human Behavior*, 39(4), 368-377.
- Tolan, P. H., Gorman-Smith, D., & Henry, D. B. (2003). The developmental ecology of urban males' youth vio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74-291.
- Waller, R., Gardner, F., & Hyde, L. W. (2013). What are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4), 593-608.
- Waller, R., Wright, A. G., Shaw, D. S., Gardner, F., Dishion, T. J., Wilson, M. N., & Hyde, L. W. (2015).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parent-reported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mong high-risk 9-year-olds. *Assessment*, 22(5), 561-580.
- 1 차원고접수 : 2019. 09. 21.
심사통과접수 : 2019. 12. 19.
최종원고접수 : 2020. 07. 20.

The Impa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on Juvenile Crime: The effect of Parenting and Socioeconomic Status

Se-jin Jeon

Joo-Young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Education and Psychology, Dongduk Women's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CU) on juvenile crime and explore additional effects of parenting and socioeconomic status on juvenile crime. A total of 103 juvenile probationer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t 3 probation offices in Seoul, and a total of 123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Seoul and Gyeonggi.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juvenile crime group showed higher score in uncaring subscale of CU, lower parent's education and lower economic level than normal group. Second, in both groups, uncaring subscale of CU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s acceptance and daily monitoring. Third, in logistic regression, uncaring subscale of CU and low economic level significantly predicted juvenile crime group. This study suggests that uncaring characteristic of CU and socioeconomic status are pot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juvenile crime.

Key words : *Callous-Unemotional Traits, Juvenile Crime, Parenting, Socioeconomic Status*